

【특집】 스페인 내전의 어제와 오늘

근대초 스페인 제국의 흥기와 몰락

김 원 중
(서울대)

I. 서론

16세기 초에 스페인은 갑자기 “지상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가 되었다. 16세기부터 17세기 전반까지 약 150년 동안 “스페인은 유럽의 지배자로 군림했고, 광대한 해외 영토를 식민지로 만들었으며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가장 넓게 퍼져 있는 제국을 경영할 수 있는 정치 체제를 고안해냈다”. 또한 스페인은 “매우 색다른 문명을 창출하여 유럽의 문화적 전통에 독특한 공헌을 했다”.¹⁾ 그러나 17세기 들어 스페인은 그 추진력과 역동성을 획득할 때만큼이나 급속하게 그것들을 상실해갔고 17세기 후반이면 다시 유럽의 주변부로 밀려난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도대체 무엇이 한 사회를 이처럼 갑자기 역동적으로 만들고 또 갑작스럽게 몰락하게 하였는가? 16세기 스페인의 성취는 하나의 환상이었는가? 스페인에

1) 존 H. 엘리엇, 『스페인 제국사 1469-1716』(김원중 역), 까치, 2000(이하 『스페인 제국사』), p. 9.

서 16세기는 진정 영광의 시대였고 17세기는 몰락의 시대였는가?

이 문제는 스페인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제기해볼 만한 의문이고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아직도 만족스런 설명은 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본 소논문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대답을 제시하기는 불가능하다. 또 필자에게는 아직 그럴 능력도 없다. 본고에서는 다만 근대초 스페인의 영광이 시작되는 15세기말 일명 가톨릭 공동왕(Reyes Católicos)²⁾으로 불리운 이사벨, 페르난도 시대로부터 스페인의 영광이 일단락되는 17세기 중반까지의 역사를 얼마 전 필자가 번역한 존 H. 엘리엇의 『스페인 제국사』를 중심으로 개괄해보고, 그에 덧붙여 근대초 스페인의 영광과 몰락의 성격에 대한 필자의 간단한 소견을 피력하고자 하는 것이다.

II. 가톨릭 공동왕의 시대(1474-1516)

이른바 스페인 제국 시대는 1469년 카스티야의 왕위계승자 이사벨과 아라곤 연합왕국(Corona de Aragón)³⁾의 계승권자 페르난도간의 결혼으로부터 시작된다. 양국의 통합은 그 국력에서 현저한 차이가 나는 상대간의 결합이었다. 당시 카스티야는 이베리아 반도 전체 면적의 약 3분의 2, 인구의 65%(600만)를 차지하고 있었고, 반면 아라곤 연합왕국은 전체 반도 면적의 약 17%, 인구는 12%(100만)정도에 불과했다. 또한 결합 당시 아라곤 연합왕국은 중세 전성기가 끝나고 쇠퇴일로에 있었던 반면 카스티야는 역동적이고 팽창력을 가진 사회였다. 카스티야는 15세기 중반 까지도 내전 등으로 정치 상황이 상당히 혼란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양모

2) 1494년 교황 알렉산더 6세가 이사벨과 페르난도에게 붙여준 칭호이다.

3) 아라곤 연합 왕국은 카탈루냐, 아라곤, 발렌시아 세 왕국이 느슨하게 결합한 형태이다.

무역을 중심으로 경제적으로 성장일로에 있었고, 만일 나라가 평화를 되찾는다면 급속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갖춘 사회였다. 이러한 점들은 양국간 통합에서 카스티야가 확고하게 주도권을 쥐게 됨을, 그리고 앞으로 ‘스페인 제국’의 운영이 압도적으로 카스티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의미했다.⁴⁾

그러나 카스티야와 아라곤 연합 왕국의 통합은 두 지역 국민간의 융합에 의한 진정한 의미의 통일이 아니라 양국이 공동의 군주를 함께 공유하는 형태의 두 왕조간의 통합이었다. 때문에 통합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각각 자체의 법과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국가통일이나 반도 전체의 중앙집권화는 거의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결혼 계약에 의해 카스티야에서의 페르난도의 권한은 엄격하게 제한되었고(카스티야에서 페르난도는 많은 경우 그의 아내 이사벨의 권한을 위임받아 통치했다), 그것은 1504년 이사벨이 죽고 페르난도만 남았을 때 카스티야의 왕위가 페르난도에게 돌아가지 않고 공동왕의 딸인 후아나에게 돌아간 데서도 잘 나타난다. 또한 아메리카는 오로지 카스티야만의 사업이었고, 여기에서 카탈루냐인이나 아라곤인들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었다. 두 지역의 경제나 행정을 통일하려는 시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때문에 카스티야 왕국 내에서는 나름대로 왕권 강화 과정이 있었지만 스페인 전체로 볼 때 가톨릭 공동왕의 치세는 국가의 통일이나 중앙집권화와는 거리가 멀었다.⁵⁾

이런 방식의 영토합병은 차후 스페인 제국의 정치구조와, 나아가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데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 왜냐하면 스페인 제국은 차후 상속이나 정복을 통해 많은 영토들을 지배 영역으로 포함시키는데 아메리카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이런 연합적 방식이 채택되었기 때문이다. 즉 스페인 왕은 새로운 영역들을 그들의 독립적 자치권을 온전히 인정한 채 병합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통합은 스페인 왕들에게 새

4) 이에 대하여는 엘리엇, 『스페인 제국사』, pp. 22-44를 참조.

5) 『스페인 제국사』, pp. 81-91 참조.

로운 영토들을 그들의 민족적 전통과 감정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 획득할 수 있게 해준 반면에 대신 스페인 제국이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발전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따라서 새로운 스페인 제국은 끝까지 단일한 국가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독립적인 법에 따라 지배되는 일련의 개별적인 지배 영역들의 연합체였고, 다른 영토의 합병이 실질적인 의미에서 스페인 왕정의 통일이나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어쨌든 통합 이후 가톨릭 공동왕은 정치적 안정 위에서 국가를 탄탄한 발전의 토대 위에 올려놓았다. 10년간의 전쟁 끝에 그라나다를 정복하여 반도 재정복(reconquista)을 완수하였고, 자치 도시들에 대하여는 국왕의 행정관들을 파견하여 국왕의 통제를 강화하였으며, 지금까지 정치불안의 온상이 되어온 귀족들에 대해서는 불온한 귀족을 체포하고, 그들의 성을 파괴하고, 귀족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토지를 몰수하고(1480년 환수령을 발표하여 1464년 이후 귀족들이 왕으로부터 양도받거나 강탈한 수입의 반 정도를 환수하였다), 대귀족 대신 중간계층(letrados)을 중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귀족들의 정치적 힘을 크게 약화시켰다. 또 당시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교회에 대하여도 성직자 임명권을 국왕이 갖게 되고 많은 수입을 교회로부터 이끌어내는데 성공함으로써 교회와 성직자들의 길들이기에도 대체로 성공했다. 또한 광대한 영토와 재산을 가진 기사단(Ordenes Militares)을 왕권에 복속시키고, 그리고 주로 기존의 세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통해 국왕의 수입을 크게 증대시켜 놓았다. 여기에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발견'과 꾸준한 정복 활동은 아직은 그 의미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고 있었지만 장차 스페인의 세계 제국으로의 발전을 약속하고 있었다.⁶⁾

또한 페르난도와 이사벨 시대의 스페인은 매우 개방되고 역동적인 사회였다. 이는 카스티야의 문화적 성취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 시기 스페인은 플랑드르, 이탈리아의 문화적 경향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스페인적 전통과 창조적으로 융합시켰다. 플라테레스크 건축 양식은 그

6) 앞의 책 pp. 97-98 참조.

한 예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무어인들의 건축 양식, 북유럽의 고딕 양식, 그리고 르네상스적 요소를 기묘하게 혼합해놓은 것으로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였으며, 이사벨 시대 카스티야의 활력을 잘 보여준다. 네브리하는 1492년 근대 유럽어로는 처음으로 카스티야 문법서를 출간했고, 페르난도 데 로하스는 『라 셀레스티나』를 썼으며, 시스네로스는 알칼라 대학에서 콤플루툼 다중어 성서(성서의 내용이 그리스어, 히브리어, 라틴어로 나란히 쓰여졌다)를 출간했다.⁷⁾

이러한 이유 때문에 스페인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공동왕의 시대를 카스티야의 황금기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항상 그리로 돌아가야 하는 이상향으로 회고하곤 했다.⁸⁾ 그라나다의 정복, 아메리카의 발견, 유럽에서의 스페인의 위세 등은 두 연합 왕국의 통합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국가에 비할 바 없는 영광을 가져다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공동왕의 시대를 이처럼 영광으로만 색칠해서는 안되며, 그 그림은 그다지 영광스럽지 못한 밑그림으로 덧칠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주장이다. 가톨릭 공동왕이 이루어낸 국가 통합은 전술한 바 있듯이 전혀 진정한 의미의 국가 통일이 아니었고, 대귀족의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약화시켰으나 그들의 사회 경제적 영향력은 거의 손대지 않았으며, 교회를 개혁하였으나 대신 종교재판소를 창설했고,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당시 사회의 가장 역동적이고 능력 있는 집단을 추방했다.

* * *

이사벨이 서거한 1504년부터 공동왕의 외손자 카를로스 5세(스페인 왕으로는 카를로스 1세)가 명실상부한 스페인 왕으로 등장하는 1522년까지

7) 앞의 책 pp. 136-40 참조.

8) 프레스콧은 페르난도와 이사벨의 치세를 “스페인 역사상 가장 영광스런 시기”라고 말했다. 앞의 책 p. 136에서 재인용.

18년의 기간은 스페인의 미래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시기였다. 즉 스페인의 제국체제로의 이행의 토대가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공동왕 시대 외교에 대한 전권을 행사했던 페르난도의 외교 정책 방향은 프랑스의 외교적 고립에 맞추어졌고, 이를 위해 그는 포르투갈, 영국,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과 왕조간 결혼을 통하여 동맹관계를 확고히 했다. 이에 따라 1496-97년에 스페인과 합스부르크 왕조의 신성 로마제국간의 동맹이 이중 결혼을 통해 이루어졌다. 즉 가톨릭 공동왕의 외아들이며 왕위 계승권자인 왕자 후안은 황제 막시밀리안의 딸 마르가레테와, 그리고 공동왕의 둘째 딸 후아나는 막시밀리안의 아들 필리프 대공과 각각 결혼했다. 그러나 후안은 결혼한지 얼마 안되어 죽었고, 이때 마르가레타는 임신중이었으나 사산했기 때문에 아들쪽으로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자 공동왕의 큰딸 이사벨과 그녀의 남편 포르투갈의 마누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미겔에게로 왕위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1498년 이사벨도 죽고, 1500년에는 그녀의 아들 미겔마저 죽음으로써 이 가능성도 사라졌다.

이런 상황은 전혀 예기치 않게 스페인의 왕위가 둘째딸 후아나와 그녀의 남편이며 황제 막시밀리안의 아들인 필리프 대공에게 돌아가게 만들었고, 그리고 필리프도 1506년에 죽고, 후아나는 정신이상 때문에 통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큰아들 카를로스에게 스페인 왕위가 승계되었으며, 그 카를로스는 스페인 왕위와 함께 부계 쪽으로 합스부르크 왕조의 세습령 모두를 상속하여 유럽과 신대륙에 걸친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게 되었다. 이로써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해 동맹 세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시작된 페르난도의 외교 정책은 엉뚱하게 스페인 영토를 한 외국인 왕조의 수중에 가져다주는 것으로 끝나게 되었던 것이다.⁹⁾

이 스페인의 제국체제로의 편입은 근대 스페인 역사의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짓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스페인

9) 앞의 책 141-47 참조.

에 ‘영광’을 가져다주기도 했지만 불행의 씨앗이기도 했다.

III. 카를로스 5세 시대(1516-1556)

1517년에 열일곱의 나이로 스페인의 왕으로 부임한 카를로스 5세는 부르군디(플랑드르, 지금의 네덜란드, 벨기에)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자란 외국인이었다. 스페인어를 말할 줄 몰랐고, 스페인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했다. 거기다가 그는 부르군디에서 데리고 온 측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 측근들은 열 여섯 살 먹은 소년을 톨레도 대주교로 앉히는 등 카스티야의 고위관직과 이권을 독차지함으로써 카스티야인들의 원성을 샀다. 거기다가 카를로스는 1519년 자신의 조부 막시밀리안의 뒤를 이어 신성로마제국 황제로 피선되었는데, 이는 한편으로는 스페인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것이기도 했지만 두 가지 점에서 스페인인들한테는 매우 심각한 걱정거리였다. 첫째는 이제 그것은 왕이 장기간 동안 나라를 비우게 됨을 의미했고, 두번째는 이제 그들의 왕이 황제를 겸하게 됨에 따라 통치 비용이 증대될 것이고 이에 따라 자신들의 과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였다.

이에 황제 피선 직후에 이미 황제의 즉위를 위한 출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도시들에서 나타났고, 그 불만은 다른 원인들과 결합하여 황제의 출국 직후 전국적인 반란으로 이어졌다. 1520-21년 자치 도시들이 주도한 코무네로스(*comuneros*) 반란은 무엇보다도 외국인 왕과 그의 측근들의 자의적 통치에 반대하여 일어난 민족주의적 감정의 분출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가톨릭 공동왕 이후 국왕 정부에 의해 자치 도시들의 전통적 권한과 특권이 침해되어온 데에 대한 반감의 폭발이기도 했다. 이 반란은 결국 1521년 비알라르 평원에서 반군의 패배로 끝났다.¹⁰⁾

10) 앞의 책 pp. 158-74 참조.

합스부르크 가문의 스페인 왕위 즉위, 카를로스의 황제피선, 그리고 다분히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던 코무네로스 혁명의 패배로 이제 스페인은 결정적으로 보편적 성격을 가진 제국이라는 거대한 구조 속에 편입되었고¹¹⁾ 유럽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카를로스는 스페인의 왕이기 전에 신성로마 황제였고, 때문에 그는 스페인의 이해보다는 제국이라는 보다 큰 이해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¹²⁾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카를로스가 점차 스페인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가고 그가 점점 더 많은 스페인인들을 요직에 중용하고, 카스티야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신이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한 민족'이라는 환상을 갖게 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카스티야적 이해와 황제 정부의 제국적 이해가 일치되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이익과 제국의 이익은 많은 점에서 달랐고 전자가 후자에 희생되는 경향은 어쩔 수 없었다.¹³⁾

이 점과 관련하여 카를로스 5세와 펠리페 2세, 3세, 4세로 이어지는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두 가지의 통치 철학이 있었다. 그 하나는 시간이 갈수록 큰 세력으로 성장해가고 있던 프로테스탄트 이단과 이슬람 세력에 대항하여 로마 가톨릭 신앙을 수호한다는 것이었다. 당시의 정서로는 한 지배자 밑에 다른 종교를 가진 집단이 있다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었고, 특히 800년간의 대 이교도 투쟁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스페인인들에게 정통 가톨릭 신앙의 수호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였다. 다른 하나는 상속받은 영토들을 잘 지켜 고스란히 다음 계승자에게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주장은 일견 별 문제가 없는 요구처럼 느껴지지만 다른 나라들 혹은 함께 제국을 이루고

11) 코무네로스의 패배는 또한 스페인이 유럽의 사건들에 휘말리게 되는 것을 저지하려는 사람들의 패배였다. 이에 대해서는 Jill Kilsby, *Spain: Rise and Decline, 1474-1643*(London, 1987), p. 38.

12) 카를로스 5세는 스페인 왕으로 재위한 40년 중 단지 16년만을 스페인에 머물렀을 뿐이다.

13) 앞의 책 pp. 174-78 참조.

있던 이질적인 구성 요소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았다. 프랑스나 영국 등 유럽 열강은 세력 균형의 측면에서 거대한 합스부르크 제국의 패권을 그대로 놔둘 수 없었고, 제국의 지배 영역들 중에는 어쩌다 제국의 지배하에 들어왔지만 상황이 허락되면 언제든지 독립하고자 하는 국가들도 많았다. 때문에 상속받은 영토를 온전히 지키겠다는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들의 주장은 확실히 제국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었고 유럽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도전을 받았으며 그것은 합스부르크 왕들에게 끝내 극복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주었다. 아무튼 합스부르크 왕들의 모든 대외 정책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이 두가지 사항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16, 17세기 스페인 제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여기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황제로 선출된 순간부터 카를로스 5세는 엄청난 책무를 떠맡게 되었다. 1520년대부터 50년대까지 프랑스와 지속적인 갈등 혹은 전쟁 상태에 있었고, 1520년대부터 투르크를 상대로 약 반 세기 동안 공방전을 벌이게 되고, 1540년대와 50년대에는 독일에서 프로테스탄트 이단들과 전쟁을 해야하는 등 급박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났다. 카를로스 5세 치하의 스페인에서 전쟁은 하나의 지배적인 주제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들 중 많은 것들이 스페인 혹은 카스티야의 이해와는 거의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프랑스와의 불화, 독일 프로테스탄트 제후들과의 전쟁 등은 스페인의 이해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고, 이런 사업을 위해 스페인의 인력과 재화를 유출하는 것은 명백히 황제의 개인적 이해에 스페인의 국가적 이해가 희생되는 것이었다.¹⁴⁾ 스페인의 이해관계는 북서유럽보다는 지중해와 북아프리카에 있었다. 스페인의 지중해쪽 해안은 북아프리카

14) 루이스 마르틴은 “16세기에 전쟁은 정상적이라면 생산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하였을 재원을 탕진함으로써 스페인의 긍정적 발전을 가로막았다.전쟁은 스페인의 경제 발전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말하고 있다. Felipe Ruiz Martín, “Gastos ocasionados por la guerra: repercusiones en España”, en V. Barbagli Bagnoli (ed), *Domanda e Consumi. Livelli e strutture (secoli XIII-XVIII)* (Florence, 1978).

해적들의 습격에 노출되고 있었고, 시칠리아로부터 들어오는 곡물은 쉽게 차단될 수 있었다. 또한 지중해를 통한 오스만 투르크의 침입은 항상 우려의 대상이었다.

끊임없는 대외전쟁은 당연히 엄청난 자금을 필요로 했고 여기에 왕실 유지, 거대한 관료제 유지를 위해서도 많은 돈이 들어갔다. 때문에 이 제국체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지배하에 있는 유럽 내, 혹은 스페인 내 여러 지배 영역들의 협력이 필수적이었다(카를로스 5세 치세만 해도 아메리카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배 영역들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통합이나 협력을 위한 노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톨릭 공동왕에 의해 만들어진 통치 방식, 즉 각 지배 영역들이 독립성과 자치권을 온전히 유지한 채 병합되는 원칙은 합스부르크 왕들의 지배하에서도 고스란히 지켜졌다. 카를로스 5세 역시 각 지배 영역들이 그곳의 전통적인 법과 제도와 방식에 의해 통치되도록 하는 일종의 연방 체제를 고수했던 것이다. 그것은 자연히 제국 전체를 위한 어떤 공동의 조직의 발전이 불가능하게 했다. 연방 체제가 제대로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덕목인 상호협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⁵⁾

이런 상황에서 1530년대까지는 제국 운영의 큰 부담을 네덜란드와 이탈리아가 졌으나 1540년대부터는 그 부담의 절대적인 몫이 스페인에게,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카스티야에게 떠맡겨졌다.¹⁶⁾ 또 카스티야 내에서도 과세부담의 대부분이 중하층 계층의 사람들에게 돌아갔다. 카를로스 5세는 몇 차례 세제 개혁을 통해 귀족 등 가진 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내려고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했다. 제국 내 여러 영역들간의 협력 부

15) 17세기의 한 법학자는 이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다음과 같이 잘 표현하고 있다: “왕국들은 여러 왕국을 지배하는 왕이 마치 그들 각각의 왕인 것처럼 지배되고 통치되어야 한다”. 『스페인 제국사』, p. 183 참조.

16) 1540년에 그는 동생 페르난도에게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나는 이제 나의 스페인 왕국들에 의하지 않고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 앞의 책 p. 221 참조.

재, 카스티야 내 각 신분들간의 과세 불균형은 16, 17세기 스페인 왕들이 어떻게든 시정해보려고 노력했으나 끝내 실패하고 만 어려운 문제였다.

정부의 급증하는 지출을 경상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고¹⁷⁾ 왕은 이 적자분을 주로 은행가들로부터 대부를 받거나 “후로(juros)”라는 이름의 국가 공채로 메꾸었다.¹⁸⁾ 그리하여 37년의 치세 동안 카를로스 5세는 스페인에서 연평균 총수입이 100만-150만 두카트인 상황에서 카스티야의 신용을 담보로 하여 약 4000만 두카트를 은행가들로부터, 혹은 후로 형식으로 차용하였다. 이런 식의 재정운영은 카스티야에 비참한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많은 사람이 비교적 높은 이율이 보장되는 국가 공채를 매입함으로써 국가의 재산이 비생산적인 부분에 투자되고, 카스티야 사회를 연금에 의존하는 금리생활자들의 사회로 만들었으며,¹⁹⁾ 국부의 원천이 외국 은행가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왕실의 재정은 대책없이 파산상태로 치닫고 있었다. 그 첫 번째 가시적 결과가 펠리페 2세가 왕위를 물려받은 첫해에 파산선언, 즉 채권자에 대한 지불 정지로 나타났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카를로스가 제국 정책을 포기하고 대외 전쟁을 중지하는 것이었으나 ‘투르크인들을 격퇴하고 분열된 기독교 세계를 로마 교회로 되돌아오게 하는 것을 필생의 과업으로 삼고 있었던’ 카를로스에게 그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경제적인 면에서 카를로스 5세 시대는 전망이 밝아 보였고 실제로 상당한 발전이 있었다. 우선 아메리카 ‘발견’과 식민화는 스페인 경제 발전에 큰 자극을 제공했다. 많은 헛점에도 불구하고 카스티야는 1530년대말

17) 예를 들어 1534년 국왕의 예상 순수입은 42만 두카트인데 비해 예상 지출 규모는 100만 두카트였다. 앞의 책 p. 227 참조.

18) 후로(juros)는 개인이나 단체가 국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리 7% 정도의 당시로서는 상당히 높은 이자를 연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다.

19) 카를로스 5세 치세 말기인 1556년에 후로에 대한 이자 지불이 국왕의 경상 수입의 68%를 차지했고, 1565년이 되면 그 수치는 84%로까지 올라갔다. H. Kamen, *Golden Age Spain* (London, 1988), p. 8과 『스페인 제국사』, pp. 227-28 참조.

부터 아메리카 무역을 독점했고 세비야는 스페인 대서양 무역의 주인이었다. 1503년부터 1660년까지 160여년 사이에 약 1,600만 킬로그램의 은이 세비야에 도착했고 이는 당시 유럽에 존재했던 은의 총 보유량의 세배가 넘는 것이었다.²⁰⁾ 이렇게 아메리카로부터 유입된 막대한 양의 귀금속은 급속한 인플레이션, 자본주의의 발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페인과 유럽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아직 카를로스 5세 시대까지만 해도 아메리카로부터 들어오는 금은의 양이 그리 많지 않았지만 신대륙과 세비야간의 점증하는 교역은 특히 세비야를 중심으로 하는 안달루시아의 경제 발전에 큰 자극을 제공했다. 이 지역은 아메리카에서 나타난 수요 증대로 농업(곡물, 포도주, 올리브유 중심)과 제조업(중저급의 직물류 중심) 생산에서 상당한 발전이 있었고 1520년경 5만이 채 안되던 세비야의 인구가 1588년에는 15만에 이르렀다. 카스티야 북부지방에도 16세기 전반에 안달루시아에 버금가거나 그것을 능가하는 경제적 변혁이 있었다. 바스크 지방의 조선업, 메디나델 캄포의 금융업은 세비야를 통한 아메리카 무역과 깊은 연계를 갖고 크게 활기를 띠었으며, 또 이와는 별개로 카스티야 북부 지방은 15세기 이래로 플랑드르와의 양모무역의 증가, 직물업의 활성화로 꾸준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어오고 있었다. 또한 16세기 전반 카스티야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고, 특히 1530년대-40년대에 급속한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이 시기 카스티야 경제는 이처럼 상당한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과 제조업 모두에서 내적 취약성에 시달려야 했고 외적 긴장에 노출되고 있었다. 양모업을 우선시해 온 중세 이래의 국왕정책으로 카스티야 농업은 자본이나 농업 기술의 측면에서 그 기반이 매우 취약했고 곡물 생산 증대를 위해서는 많은 자본이 필요했으나 그 당시 자본은 주로 상업 분야에 투입되고 있었다. 카스티야 직물업도 농업과 비슷한 호경기를 누렸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불안한 기반 위에 놓여있었다. 카

20) 아메리카 귀금속 유입에 대하여는 앞의 책 p. 202와 Vicens Vives, *An Economic History of Spain* (Princeton Univ. Press, 1969), p. 323 참조.

스티야 직물은 다른 서유럽 국가들의 그것에 비해 질이 떨어지고 가격은 비쌌다. 때문에 아메리카 무역에 대한 독점이 확고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때는 저질 고가의 물건도 팔아먹을 수 있었지만 그런 상황이 오래갈 수는 없는 것이었고 점차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가진 외국의 제품들이 합법적, 불법적 경로를 통해 아메리카로 유입되었다. 그렇다고 국내 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 육성하려는 정부의 노력도 그리고 정책도 없었다.²¹⁾

여러 가지 징후를 볼 때 16세기 전반만 해도 카스티야에는 영국이나 네덜란드처럼 역동적인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상당히 탄탄한 전망과 기회는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스페인 사람들은 애초부터 자본주의적 마인드를 갖지 못했다고 말하는 일부의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이 유리한 기회와 전망들이 결국 실현되지 않은 책임의 많은 부분은 기업가들 보다는 보다 높은 수준에서, 즉 정부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재정 정책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업 혹은 재정 분야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었고, 일관된 경제 프로그램을 입안하거나 아메리카 제국의 획득이 스페인 경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숙고해보려고 하지 않았다. 세비야의 무역 독점 말고는 어떤 일관되게 추진된 중상주의 정책도 없었다. 광산 외에는 신대륙의 부를 체계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없었고, 신대륙에서 카스티야 경제를 보완할만한 어떤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시도도 거의 없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실패는 아메리카로부터 들어오는 은을 스페인 경제를 위해 효과적으로 이용할 아무런 계획도 세우지 못한 것이다. 이 실패의 책임은 궁극적으로는 제국정책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카를로스 5세가 채택한 방식하고 깊이 연관을 갖고 있다.²²⁾

한편, 사회적으로 1540년대 이후 스페인은 매우 “단한” 사회였고, 그것은 가톨릭 공동왕 시대의 “열린” 사회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종교재

21) 카를로스 5세 시대 스페인 경제 발전에 대하여는 『스페인 제국사』, pp. 199-219 참조.

22) 앞의 책 pp. 218-219 참조

판소와 순혈령(limpieza de sangre)은 사회 전반에 불안감을 조성하고 스페인인들의 생활 영역을 협소하게 만들고 풍요롭고 활력있는 한 사회를 순종의 굴레 속에 가두어놓았다. 50년대 후반 60년대 초에 유럽 전역에서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티즘간에 남아있던 화해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지고 양 진영간에 전투적 분위기가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스페인에서는 외국 서적의 유입이 금지되고, 금서목록의 발표로 모든 책들이 검열을 받았으며, 스페인 학생들의 외국 유학이 금지되었다. 이런 경향들은 당연히 스페인의 지적 생활에 큰 타격을 가했다. 이런 폐쇄적 경향은 펠리페 2세 시대 들어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²³⁾

만일 이 카를로스 5세 치세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뽑아본다면 재정악화와 사회의 폐쇄화라는 부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의 국제적 위상 증대, 경제 발전, 인구 증가, 그리고 아메리카 식민지의 앞으로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겠고, 지배 계층의 능력에 따라서는 장차 커다란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사회였다고 할 수 있다.

IV. 펠리페 2세 시대(1556-1598)

펠리페 2세의 즉위는 스페인 왕정(monarquía española)의 성격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플랑드르에 무게중심을 둔 중부 유럽 제국으로부터 스페인에 기반을 둔 대서양 제국으로의 전환을 의미했다. 펠리페 2세는 부친과는 달리 스페인에서 태어나 스페인에서 교육을 받고 자랐고, 스페인어밖에 할 줄 몰랐다. 부왕(父王)이 갖고 있던 신성 로마제국 황제의 타이틀과 합스부르크 가문의 땅을 상속하지도 못했다.²⁴⁾ 또한 카를로스가 몸소 전장을 누비는 중세 기사적 왕이라면 펠리페는 하루종

23) 앞의 책 pp. 233-75 참조.

24) 그것들은 카를로스 5세의 동생 페르난도에게 돌아갔다.

일 서류더미에 파묻혀 살면서 사소한 문제까지 직접 챙기는 관료적 왕이었다. 스스로에게 매우 엄격하고, “신중왕”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대단히 신중하고 꼼꼼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²⁵⁾

그러나 펠리페 2세의 즉위로 스페인의 보편 제국적 성격이 크게 약화되고 제국이 크게 스페인화되기는 했지만 제국이 진정한 의미에서 스페인적인 제국도 아니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카스티야 제국이 되어갔다. 펠리페 자신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카스티야의 중심에 수도를 정했기 때문에²⁶⁾ 자연히 정부는 카스티야적 면모를 지니게 되었다. 그는 마드리드의 궁정에서 카스티야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수입의 압도적인 부분을 카스티야의 재원에 의존했다. 이런 상황에서 부왕직이나 왕실 혹은 제국의 고위 관직이 카스티야인들에게 돌아간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제국의 이런 카스티야화 추세를 카탈루냐인들이나 아라곤인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 또한 자연스러웠다. 이로 인해 카스티야인과 아라곤인 간의 적대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어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 때문에 제국 운영의 문제를 두고 카스티야를 중심으로 행정적, 경제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과, 각 지배 영역의 독립과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연방주의적 입장간의 갈등은 16, 17세기 내내 지배자들간에 항구적인 논란거리가 되었다.²⁷⁾

그러나 펠리페 2세의 통치방식은 카를로스 5세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단과 이교에 맞선 가톨릭 세계의 수호자로서의 스페인 왕의 역할은 고스란히 펠리페 2세에게 계승되었으며, 제국의 영토와 정통 가톨릭 신앙을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수호한다는 생각은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 펠리페 2세는 “종교와 신에 대한 봉사가 털끝만큼이라도 위해를 당하느니 차라리 짐이 지배하는 모든 나라들을 포기하고, 그리고 내가

25) 펠리페 2세의 통치 경향에 대하여는 『스페인 제국사』, pp. 277-289 참조.

26) 그때까지 이리저리 옮겨다녔던 스페인의 궁정은 1561년에 마드리드로 고정되었다.

27) 앞의 책 pp. 289-301 참조.

만약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수백개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낫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이교도의 지배자가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제국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의 독립과 자치를 보장한다는 선왕들의 정책도 바뀌지 않았다. 제국 운영 부담도 1570년대 이후 아메리카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기는 했지만 카스티야 혼자서 짊어지는 현상은 더욱 심화되었고 전쟁 비용은 전보다 훨씬 커졌다. 여전히 돈은 크게 부족했고 그것을 빚과 관직매매 등 일시적 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전과 다르지 않았다.

펠리페 2세 치세 초기 약 20년 동안은 위기의 시대였다. 1557년의 파산선언에 이어 1560년대의 일련의 사건들은 스페인을 줄곧 수세에 몰리게 만들었다. 1560년 5월에 있었던 제르바 섬에 대한 스페인-이탈리아 연합군의 공격 실패와 그로 인한 투르크 해군의 공세 강화, 1568-70년 그라나다 모리스코들의 대규모 반란(제 2차 알푸하라스 반란), 프랑스 종교전쟁의 발발, 해상에서의 영국 해적들의 공격 등은 60년대 내내 스페인을 수세에 몰리게 했다. 그중에서도 1566년에 시작된 네덜란드 반란을 초기에 진압하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뼈아픈 것이었다. 이 네덜란드 반란은 16, 17세기 스페인에게서는 하나의 ‘저주받은 망령’이었다.²⁸⁾ 그것은 1648년에 네덜란드의 독립으로 종결될 때까지 약 80년 동안 스페인의 물적, 인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1570년대 역시 1571년 레판토 해전의 승리로 지중해에서의 투르크의 위협은 수그러들었지만 네덜란드 반란의 진압 실패, 1575-76년의 두 번째 파산선언 등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진 암울한 시기였다.

80년대 들어 사정이 좀 나아졌다. 무엇보다도 1570년대 후반부터 신대륙으로부터 왕에게 도착하는 은의 양에 극적인 증가가 있었다. 1580년대와 90년대에 펠리페 2세는 연간 약 200만-300만 두카트의 수입을 아메리

28) 『스페인 제국사』, p. 365. 카멘은 이 네덜란드 반란을 스페인의 돈과 생명을 빨아들이는 ‘스페인의 베트남’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Kamen, *Golden Age Spain*, p. 11.

카로부터 기대할 수 있었다(전체 수입의 약 20%를 차지). 또 이 아메리카로부터의 수입 덕분에 왕은 다시 은행가들로부터 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이 새로운 호황으로 펠리페는 그가 즉위한 후 처음으로 행동의 자유를 갖게 되었고 오랫동안의 수세 끝에 공세로 돌아설 수 있게 되었다. 펠리페가 1580년대와 1590년대에 북부 네덜란드 회복을 위해 적극적 공세에 나서고(그것은 성공 일보직전까지 갔다), 1588년에 영국에 대해 무적함대를 파견하고, 1590년대 프랑스 내전에 개입하는 등 대담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재정 호황 때문이었다.²⁹⁾

여기에 1580년 포르투갈이 스페인에 합병되었는데, 이 포르투갈 합병은 잘만하면 스페인의 국가 발전을 위해 매우 좋은 기회로 활용될 수도 있었다. 예를 들어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상선들을 합치면 약 30만톤 규모에 이르러 라이벌들을 누르고 세계최강의 무역 함대를 만들어낼 수도 있었다. 그러나 포르투갈에 대해서도 경제적 혹은 행정적 통일은 시도되지 않았고 대신 완전한 자치가 허용되었다. 그럼으로써 포르투갈 합병은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또 하나의 부담스런 골치거리로 남고 말았다.³⁰⁾

1590년대는 다시 위기의 시기였다. 아메리카로부터 들어오는 엄청난 양의 은은 왕으로 하여금 결국에는 그의 수입을 통째로 삼켜버리고 나아가 엄청난 빚더미에 나 앉게 할 거대한 사업들에 착수하도록 유혹했다. 무적함대 하나만 해도 약 천만 두카트가 소요되었고, 1590년대 중반에 왕은 연간 1200만 두카트 이상을 지출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메리카 은으로 들어오는 왕의 수입은 그의 연간 총 수입의 4분의 1에 채 미치지 못했고 나머지는 전과 마찬가지로 카스티야에서 거두는 세금으로 충당해야 했는데 카스티야의 과세 부담 능력은 이미 한계에 이른지 오래였다. 1596년 또 한 차례의 파산선언은 그 자연스런 귀결이었다.³¹⁾

29) 앞의 책 p. 303.

30) 『스페인 제국사』, pp. 301-11 참조.

31) 앞의 책 pp. 321-40 참조.

이때부터 스페인이 국제 프로테스탄트 세력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점차 분명해졌다.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충격적인 타격은 1588년 무적함대의 패배였다. 무적함대 패배가 카스티야인들에게 가져다 준 정신적 충격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16세기 승리하는 스페인과 17세기 패배하는 스페인을 구분하는 분기점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 1588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패배와 1596년의 세 번째 파산선언은 펠리페의 대 북방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음을 인정하게 만들었고 그를 평화정책으로 돌아가게 만들었다.

1590년대는 경제적으로도 심각한 위기 상황이 진행되고 있었다. 1590년대에 아직도 막대한 양의 은이 세비야에 도착하고 있었지만 그런 걸모습은 스페인-대서양 무역 체계에 나타나고 있었던 중대한 변화를 은폐하고 있었다. 아직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 무렵 아메리카 경제에는 심각한 모종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경제상황의 변화를 가져온 가장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아메리카 인디오 인구의 격감이었다. 멕시코의 경우 1519년 정복 당시 약 1100만이던 원주민 수가 16세기말이면 200만 정도로 감소했다. 페루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중요한 기술적 진보가 없는 상황에서 노동력의 감소는 곧 경제의 위축을 의미했다.

그러나 스페인의 입장에서 더 심각했던 것은 아메리카 식민지에 스페인 경제와 유사한 형태의 경제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제 식민지에서도 중저급의 의류, 곡물, 포도주, 올리브유를 생산해냈는데, 이들 품목들은 지금까지 스페인이 아메리카에 수출하는 화물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들이다. 지금까지 스페인이 아메리카에 수출해온 주요 품목들을 아메리카 정주자들이 자급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제 스페인이 생산하는 상품은 아메리카가 원하지 않았고 아메리카가 원하는 상품은 스페인이 생산하지 못했다. 따라서 세비야로부터 계속해서 상품은 아메리카로 들어가고는 있었지만 이제 그 대부분이 비스페인산 상품으로 채워지고 있었던 것이다. 아메리카 시장의 수요 변화는 스페인(카스티야) 경제에서 오래 전부터 재조정의 필요를 제기해왔으나 카스티야는 그것을 감당할 준

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³²⁾

이 시기에 또한 카스티야의 경제는 명백히 침체와 위기의 징후를 보여 준다. 인구의 대규모 도시로의 이동이 나타나 많은 농토가 버려진 땅으로 되었고, 1590년 동안 흉작이 연이어 발생했으며 곡물가격이 폭등하였다. 1599년-1600년간에 만연한 대역병은 16세기에 증가한 15%의 인구를 단번에 휩쓸어버렸으며, 이때를 기점으로 카스티야 인구는 침체와 감소의 시대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³³⁾

42년 간의 펠리페 2세 치세를 결산해볼 때 그의 치세는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라고 할 수 없어 보인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제국의 영토와 가톨릭 신앙은 어쨌든 지켜지고 있었고, 그의 지배 영역은 아메리카의 식민화 진행, 포르투갈과 그 식민지의 합병으로 오히려 전보다 훨씬 커져 있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면 그것은 실속 없는 속빈 강정이었다. 포르투갈과 그 식민지들은 펠리페의 제국 운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시켰으며, 또 그 동안의 무리한 제국 정책으로 스페인의 국가 재정은 거의 완전히 바닥난 상태였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네덜란드 반란을 조기에 진압하지 못한 것이었다. 이 네덜란드 반란은 그후 80년 동안 스페인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고갈시키는 영원한 두통거리가 되었다. 또한 90년대의 심각한 경제적 위기, 역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는 펠리페 2세 말기에 스페인이 몰락과 위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V. 펠리페 3세와 4세 시대

펠리페 3세(1598-1621)와 펠리페 4세(1621-1665)에 대하여는 지금까지

32) 앞의 책 pp. 330-33 참조.

33) 앞의 책 pp. 333-40 참조.

매우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그들은 완전히 무능하고 게으르고 위약했으며, 그것은 17세기 스페인 몰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최근에 와서 그와 같은 설명에 이의가 제기되고는 있지만 적어도 그들이 16세기의 왕들보다는 덜 성실하고, 덜 유능했고, 그것은 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통치 환경과 더불어 17세기 스페인 몰락을 재촉했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어보인다. 제국이 파국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정치가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에서 17세기 스페인 왕들 너무나 평범한 인물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어쨌든 17세기에 와서 스페인 국왕들의 통치 스타일에는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총신(valido, privado) 체제가 그것인데, 이 체제는 왕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총신이 왕을 대신하여 사실상 왕국을 다스리는 것이었다. 펠리페 3세 시대의 레르마 공작, 펠리페 4세 시대의 콘테 두케 데 올리바레스가 대표적이다. 17세기에 스페인에 총신 체제가 등장한 것은 우선 왕들의 통치 능력과 열의가 부족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또한 점점 복잡해져가는 당시 통치의 성격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즉 많아져가고 복잡해져 가는 수많은 안건들을 왕 한 사람이 검토하여 결정을 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펠리페 3세 치세는 전체적으로는 평화기였다. 1598년과 1604년에 각각 영국과 프랑스와 평화조약이 체결되었고, 1609년부터는 네덜란드와 12년간의 휴전이 성립되었다. 덕분에 스페인은 제국 운영 비용 부담의 재조정, 부유층과 빈곤층간의 과세 불균형 해소 등 개혁을 통해 그간 고갈된 국가 재정을 다시 충실히 하고 국가를 재정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질 수도 있었다. 그러나 레르마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했고 관직과 사법권의 매각, 화폐 조작 등 편법과 임시방편적인 정책으로 일관하였으며 개혁은 거의 시도되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17세기에 접어들면서 아메리카로부터의 수입은 크게 줄어들었다. 펠리페 2세말 연간 약 200만 두카트의 수입을 안겨주던 아메리카로부터의 수입은 1615-16년에 겨우 100만 두카트 정도로 감소하였

고, 1610년대 말에는 100만 두카트에 훨씬 못미칠 정도로 급감하였다.³⁴⁾ 레르마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일한 정책은 1609년 모리스코들을 추방한 것이었다. 이 조치로 총 30만명의 모리스코 중 약 27만명이 추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모리스코 추방은 철저히 경제 현실을 무시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주저없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에 호소하고 군중 혹은 집단의 압력에 쉽게 굴복하는 레르마 체제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이 모리스코 추방이 스페인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는 아직 만족스런 연구가 없지만 특히 이들이 많이 살고 있었던 발렌시아와 톨레도, 세비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당한 악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³⁵⁾

또한 17세기 스페인을 다른 서유럽 국가들과 구분짓게 하는 것이 “중산층의 부재”였다. 부와 빈곤의 현저한 차이는 스페인만의 현상이 아닌 유럽적 현상이었으나 스페인의 특별함은 이런 빈부의 차이가 아니라 두 극단간의 골을 매워줄 견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중간층이 없었다는 것이다. 『돈 키호테』에서 산초 판사의 할머니는 “세상에는 오직 두 가문만이 있을 뿐인데,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el tener y el no tener)가 그들이 다”라고 말하고 있다. 한마디로 17세기 스페인은 일하는 사람이 없는 사회였다. 곤살레스에 따르면, 그 사회는 정직하게 일하는 한 사람 당 서른 명의 기식자(寄食者)가 딸린 지극히 가분수적인 사회였다.³⁶⁾

34) 앞의 책 p. 366.

35) 1633년에 왕실의 고해 사제는 “모리스코들이 추방된 지 불과 몇 년이 지났을 뿐이다. 그들의 추방은 우리 왕국들에 너무나 많은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만약 그들에게 우리의 성스러운 신앙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할 수만 있다면 그들을 되돌아오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스페인 제국사』, p. 349에서 인용.

36) 곤살레스 데 세요리고는 그의 책 『스페인 공화국에 필요하고 유익한 회복에 관한 비망록』에서 “우리 공화국은 부와 가난의 극단적인 대조가 지배하는 곳이 되었으며 그 둘을 조정할 아무런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의 상황은 편하게 놀고 먹는 부자들과 빵을 구걸해야 하는 가난뱅이들만 있고부나 가난 때문에 방해받지 않는 중산층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쓰고 있다. 『스페인 제국사』, pp. 351-52.

바로 이런 사회가 문화적으로는 황금시대였다는 것은 일견 역설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사회구조 혹은 경제조직이 예술가들이나 작가들에게는 크게 불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의 상류층이 약해진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예술가나 문학가들을 지원해줄 여력도 있고 작품을 즐길 여가도 있었다. 귀족들은 자신들을 과시하는 한 방편으로 예술가를 후원했다. 또한 이 시기의 스페인의 몰락은 지식인들을 자극하여 그들에게 특별한 상상력을 제공하고 그것을 창조적인 방향으로 유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점은 세르반테스에게서 잘 확인되는데 그의 생애(1547-1616)는 제국의 흥기와 쇠퇴라는 두 시기에 걸쳐있었다. “16세기말 17세기초의 위기는 영웅의 시대와 환멸(desengaño)의 시대를 나누면서 스페인 사회를 관통했듯이 세르반테스의 삶을 관통했고 여기에서 세르반테스는 낙관주의와 비관주의, 열정과 아이러니간의 균형을 기적적으로, 절묘하게 유지했다”. 정신과 육체, 꿈과 현실 사이의 이원론은 17세기 유럽 문명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지만 스페인에서는 그것이 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점은 칼데론의 작품들, 벨라스케스의 그림들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³⁷⁾

1621년부터 약 20년간 펠리페 4세를 대신해서 스페인을 다스린 올리바레스는 이상적인 정치가였다. 그는 열심히 일하고, 국사의 세세한 부분까지 꿰뚫고 있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정직하였다. 그는 또한 정력적인 개혁가이고 16세기의 제국적 전통의 계승자였다. 즉 그는 16세기 스페인 제국의 영광이야말로 현재의 모든 재난들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옛 영광의 재현에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는 카스티야가 다시 세계의 주도권을 쥐어야 하고 이를 위해 스페인의 통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에 따라 1621년 집권하자마자 네덜란드와의 전쟁을 재개하고 독일에서 벌어진 30년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1628-31년에 이탈리아 만투아에서의 프랑스와의 전쟁을 다시 시작한 것은 그의 제국주의적 정책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37) 앞의 책 pp. 361-63 참조

있다. 그러나 상황을 지속적으로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뒷받침되어야 했는데, 이 점에서 상황은 16세기보다 훨씬 나빠져 있었다. 카스티야의 재정 부담 능력은 이미 오래 전에 한계에 달해 있었고 아메리카로부터의 수입은 격감하고 있었다. 수출 증대, 인플레이션 억제, 농업과 산업에의 투자 증대 등 국가 재정을 보다 건전한 토대 위에 올려놓기 위한 개혁을 강력하게 시행하였으나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였다.

그렇게 되자 관심은 다시 근본적인 데로 돌아갔다. 즉 제국 운영을 거의 도맡고 있는 카스티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른 지역의 적극적 협력을 얻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카스티야 내에서도 부자들로부터 돈을 끌어내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었다. 그것은 프랑스를 비롯한 다른 유럽 국가의 정치가들이 국력을 강화하고 자국민들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하고 국가의 재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그 당시의 일반적인 추세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올리바레스가 스페인 제국의 “카스티야화”에서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구한 것은 당연했다. 왜냐하면 만일 제국 전체에 통일된 형태의 법이 도입되면 그가 항상 불평해온 여러 왕국들간의 “분열”은 사라질 것이고 잠재적으로만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스페인 제국의 부를 효과적으로 동원하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었다.³⁸⁾

이에 따라 올리바레스는 “연합군”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 계획은 14만 명 규모의 공동 예비군을 창설하고 이를 위해 제국을 구성하는 모든 국가들이 각각의 부담 능력에 따라 병력과 비용을 제공한다는 것이었고 만일 제국에 속한 어떤 나라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면 즉각 이 예비군을 파견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특히 포르투갈과 바르셀로나가 완강하게 반대했고, 반대를 무릅쓰고 행해진 무리한 정책 시행은 결국 카탈루냐와 포르투갈 양국에서 대규모 반란으로 이어졌다. 결국 포르투갈의 반란은 독립으로까지 이어진 반면 카탈루냐는 우여곡절 끝에 다

38) 앞의 책 p. 375 참조.

시 스페인의 체제로 편입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는 실패로 돌아갔고, 스페인은 다운즈 해협에서의 해군의 참패(1639), 포르투갈과 카탈루냐의 반란(1640), 그리고 로크루아 전투에서 프랑스군에의 패배(1643)를 결정적인 고비로 한 세기 반에 걸친 영광의 시기를 마감하게 된다.

VI. 결론

16, 17세기 스페인 역사에 대한 전통적 시각은 16세기 동안 스페인이 위대한 제국 시대를 구가하다가 17세기 동안 지속적이고 철저한 몰락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즉 이 논리는 유럽에서 최강국으로 군림했던 카를로스 5세와 펠리페 2세 시대의 스페인과, 그 자리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에게 급속하게 내주고 마는 펠리페 3세와 펠리페 4세 시대의 스페인 인간의 뚜렷한 대조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사상은 과연 옳은 것인가? 16세기와 17세기간의 대조는 것처럼 뚜렷한 것인가? 오늘날 역사가들은 이에 대해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 즉 17세기에 스페인이 직면하게 되는 여러 난제들의 씨앗은 이미 16세기에 심어졌다는 것이고, 그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재정파탄은 이미 1550년대 말에 시작되었고 경제 침체, 인구 감소는 이미 1580년대부터 시작되고 있다. 1580년대면 이미 제국 정책의 과중한 부담으로 인한 피로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 1590년대면 스페인 경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인플레이션, 대규모 역병, 인구 감소, 그리고 중남미 상황의 악화 등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었다.

또 17세기 몰락이라는 그림도 그 위기가 비록 스페인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결코 스페인만의 현상이 아닌 유럽 전반의 현상이었다는 것, 어찌됐든 스페인은 1660년대까지도 유럽 열강의 하나로 군림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17세기가 세르반테스와 로페 데

배가, 그리고 벨라스케스와 무리요가 활약한 ‘황금 시대’였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16세기의 영광과 17세기의 좌절이라는 뚜렷한 대조는 상당 부분 완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스페인이 16세기에 유럽의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는 호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을 허공에 날려버렸다고 하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이사벨과 페르난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스페인을 유럽 최초로 근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탄탄한 토대를 닦아놓았고 아메리카 정복과 식민화는 광대한 상품 시장 확보와, 후에 나타난 막대한 귀금속 유입을 고려할 때 스페인의 발전을 약속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상속을 통해 스페인의 왕이 유럽 내에 광대한 지배 영역을 갖게 된 사실도 스페인의 발전에 불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 그 유리한 전망과 무한한 가능성은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필자의 생각으로는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이 지배계층, 그 중에서도 스페인 왕들의 근대적 마인드의 부재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먼저 그들은 로마 가톨릭 신앙의 수호라는 중세적 이상과 무리한 제국주의 정책에 스페인의 국가 이익을 희생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이 두 정책에의 집착은 스페인을 유럽에서 벌어진 거의 모든 전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였고, 제국 내 다른 국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는 상황에서 스페인의 부는 대책 없이 이 전쟁들에 빨려 들어가고 결국 빈 껍데기만 남게 되었던 것이다. 이 점에서 신성 로마 황제를 겸하고 있었던 카를로스 5세가 그러한 이상과 정책에 집착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후 펠리페 2세와 17세기 스페인 왕들이 국가의 이익을 도외시키고 가톨릭 신앙의 수호라는 명분에, 그리고 스페인과 별로 이해관계가 없는 네덜란드를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부를 쏟아 부은 것은 그들의 전근대적 사고가 스페인 실패의 중요한 원인임을 말해준다. 그러한 사고 구조가 그 당시 지배자들의 일반적 한계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꼭

그런 것만도 아닌 듯 하다. 동시대의 영국이나 프랑스의 지배자들이 진정한 의미의 중앙집권화를 이루어 나가고 국가 이성의 추구를 통해 근대 국가로의 길을 달려가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근대 초기 적절한 리더쉽의 부재는 스페인 역사에서 매우 뼈아픈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J. H. Elliott, 스페인 제국사 1469-1714, 까치(김원중 역), 2000.
- J. H. Elliott, *Spain and its World 1500-1700: Selected Essays*, Yale Univ. Press, 1989.
- J. H. Elliott(ed.), *The Hispanic World*, London, 1991.
- Henry Kamen, *Spain 1469-1714, A Society of Conflict*, New York, 1983.
- Jill Kilsby, *Spain: Rise and decline, 1474-1643*, London, 1989.
- John Lynch, *Spain under the Habsburgs*, 2vols., 2nd ed., Oxford, 1981.
- Antonio Domínguez Ortiz, *El Antiguo Régimen: Los Reyes Catolicos y los Austrias*, Madrid(Alianza Editorial), 1988.
- Pere Molas Ribalta, *Edad Moderna 1474-1808*, Madrid(Espasa Calpe), 1988.
- Enriquez M. Ruiz y varios autores, *La España Moderna*, Madrid, 1992.

[Resumen]

Prosperidad y caída del imperio español en el siglo XVII

Won Joong Kim

Según la interpretación tradicional, España gozó de gran época imperial en el siglo XVI, y experimentó la decadencia exhaustiva en el siglo XVII. Este punto de vista pone en énfasis el contraste evidente entre el siglo XVI de Carlos V y Felipe II que reinaba los otros países como un emperador y el siglo XVII de Felipe III, Felipe IV y Carlos II que entregó ese trono glorioso a Francia, Inglaterra y Holanda con rapidez. ¿Esta interpretación es verdad? ¿El contraste tan evidente entre los dos siglos está conforme con la realidad? Hoy en día hay muchas disputas sobre este tema. Así que numerosos historiadores presentan unas opiniones diferentes. Algunos insisten en que las semillas de la crisis del siglo XVII fueron sembradas ya en el siglo XVI, y los otros opinan que España del siglo XVII, a pesar de alguna debilitación, siguió siendo poderoso todavía. Al considerar varios aspectos, pensamos que el contraste entre estos dos siglos debe ser mitigado.

Y también parece claro que España de la época moderna tuvo una oportunidad inmejorable para ser un país de primer grado en Europa con el “descubrimiento” de América. Pero esa oportunidad se disipó fugazmente al fin y al cabo. ¿Por qué España no pudo aprovechar la oportunidad? Creemos que la responsabilidad más importante del fracaso consiste en la falta del pensamiento moderno entre los gobernadores españoles de la época moderna; sobre todo, de los reyes. Los reyes se apegaron excesivamente a los dos ideales políticos esencialmente

medievales; el uno fue la obsesión excesiva en defender la religión católica contra la invasión de protestantismo y del poder musulmán. El otro fue el sentido de obligación de los reyes de que la integridad territorial de la monarquía debe ser defendida a toda costa. La adhesión a estos dos ideales medievales impuso a España a participar en casi todas las guerras del siglo XVI y XVII, de modo que la riqueza española, sin la cooperación de otras partes de la monarquía, se escapó al aire finalmente.